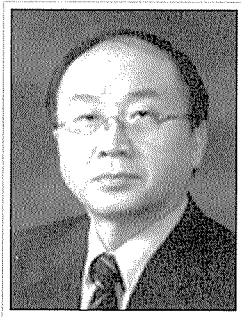




원자력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김 우 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

앞으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더 확대되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자리가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함

으로써 원자력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먼 길을 와주신 루이스 에차바리(L.E. Echavari) OECD/NEA 사무총장님, 토미히로 타니구치(Tomihiro Taniguchi)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님, 친애하는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21회 원자력 연차대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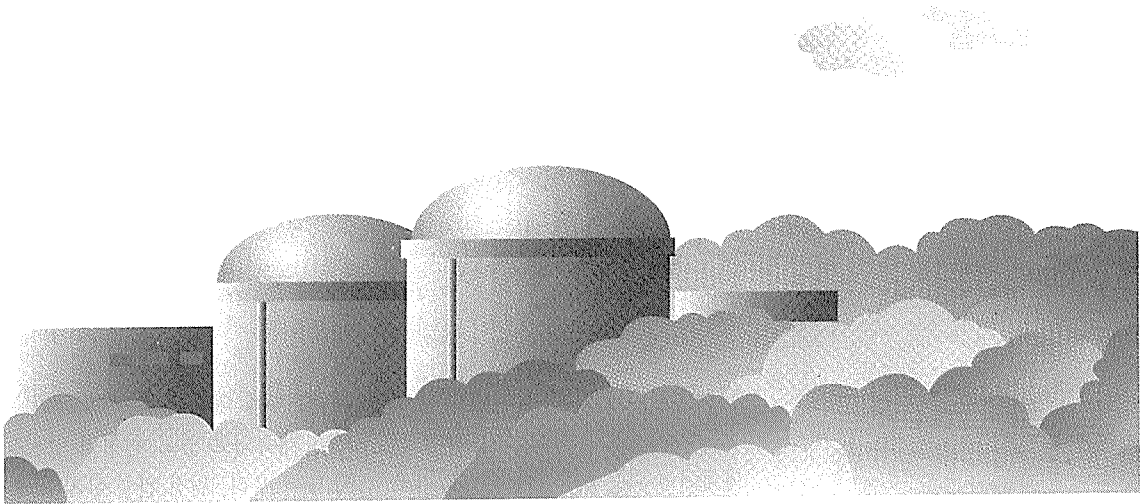
친애하는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최근 2년간 2배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교토의 정서 발효에 따른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온실 가스 저감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도 신규 원전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의 부흥 움직임은 다양한 원전의 건설과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

1978년 고리 1호기의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총 20기의 원전을 운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학계, 산업계, 연구계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한국표준형원전, 고성능 신형핵연료, 신형 경수로 개발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원자력에 중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소임을 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원자력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2011년까지의 원자력 장기 국가 계획으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원자력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3차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계획 수립에 원자력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가 경

주로 확정되면서, 정체되었던 원자력 발전에 물꼬를 트는 소중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가 없는 원자력 발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앞으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더 확대되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함으로써 원자력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21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